

조선후기 왜관요의 자원 수급

허현정*

| 목 차 |

- I. 서론
- II. 왜관요의 개요 및 운영
- III. 인원
- IV. 원료 및 연료
- V. 결론

| 국문초록 |

왜관요(倭館窯)는 임진왜란 이후 왜관에 설치되어 대마번(對馬藩)의 구청자기를 제작하였던 가마이다. 임진왜란 이후 왜관은 절영도에 설치된 뒤 두모포, 초량으로 이전되었다. 왜인가청등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두모포 왜관 때 처음으로 왜관요를 운영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왜관요는 이전에 왜관 밖에 설치되었으나 이후 왜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적혀있다.

대마번에서 개요를 요청하는 서계를 보내고, 이를 동래부사가 장계로 경상감사를 통해 예조로 보내며, 예조에서 이 개요를 승인하였을 때 비로소 왜관요가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마번은 왜관요에서 사용될 도토와 약토, 땔감 등을 함께 구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기장 및 옹기장도 요청하여 왜관요에서 원활히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졸업 / adelaide90@naver.com

자기를 제작하는 인원은 일본에서 구청한 조선인 사기장, 옹기장, 일꾼에 더하여 일본에서 파견된 도공두, 화공왜, 번조왜 등까지 포함되었다. 이들의 임금도 대마번에서 지급했다. 주원료인 도토는 경상도 진주, 하동, 곤양, 경주, 울산, 김해 등지에서 공급하였으며, 대마번에서는 원료의 양, 종류, 생산 지역 등을 선별하여 구청했다. 연료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마번에서 연료를 구청하면 이를 받아 조선 왕실에서 왜관요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했다. 주 연료인 땔감은 부산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상도 도민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에서는 왜관요의 운영과 도자기의 생산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왜관요 운영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왜관요, 왜관요의 운영, 도토의 이동, 사기장, 일본 구청

I. 서론

왜관요(倭館窯)¹⁾는 임진왜란 이후 부산 왜관에 설치되어 일본의 주문 자기를 생산했던 가마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하면서 대일 외교의 주체로 대마번(對馬藩)이 떠올랐는데, 조선으로의 구청 및 구무 역시 대마번에서 주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왜관요는 일본의 주문을 받아 조선의 도토와 땔감, 사기장을 조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자기를 생산했다.

왜관요의 첫 개요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현재

1) 왜관요는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에 의해 부산요라고 명명되어 오랫동안 부산요로 불렸다. 이는 부산에 있었던 가마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었으며, 이후 이즈미 초이치(泉澄)도 ‘부산요’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당대의 사료를 살펴보면 부산요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부산요라 불릴 만한 가마 역시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가마의 운영 주체는 왜관이였다. 한국에서 권상인, 이승민 역시 이러한 근거로 왜관요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에 본고 역시 왜관요라고 명명한다.

남아있는 기록 중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에 기록된 1639년의 개요가 가장 이른 개요기록이다. 왜관요는 대마번과 대마번의 초닌[町人]에 의해 1718년까지 운영되었으나, 이후 대마번의 재정 악화로 인해 지원이 어렵게 되자 폐요되었다.

일본이 조선에 자기를 주문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차노유[茶の湯]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센리쥬[千利休, 1522~1591]를 필두로 하는 차노유 문화로 인해 조선 자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일본에서 인지도가 상승하던 이 시기의 조선산 자기를 고려다완(高麗茶碗)이라고 한다.²⁾ 본래 조선 지방요에서 생산하던 조질 백자 혹은 막사발이 일본으로 들어가 다완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는 조선의 자기가 일본 차노유의 가장 중심된 사상인 와비[侘び] 사상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자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노유 문화가 이어지면서 일본 내 조선 자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조선에서 생산된 자기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다. 일본에서 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조선산 자기의 인기는 꾸준히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왜관요가 설치되었고, 왜관요는 이후 폐요될 때까지 일본의 주문자기를 지속해서 생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자기를 일컬어 고힌[御本]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사를 정리해보면,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의 『釜山窯と對州窯』가 등장하면서부터³⁾ 본격적으로 왜관요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이즈미 초이치[泉澄一]는 『釜山窯の史的研究』를 집필하면서 왜관요와 관련된 각종 사료들을 정리하였다.⁴⁾ 이즈미 초

2) 고려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실제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자기를 일컫는 것이 아닌 조선에서 제작된 자기를 일컫는다. 고려다완은 본래 서민들이 사용하던 생활자기였고 막사발로 쓰였지만, 일본으로 수출된 뒤로는 다기로 전용되었고 일본인들에게 크게 사랑받았다.

3) 아사카와 노리타카 저 최차호 역, 『왜관요와 일본다완』, 어드북스, 2012, 20~23쪽.

4)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참조.

이치는 한국의 『왜인구청등록』, 『변례집요(邊例集要)』, 일본의 『종가문서(宗家文書)』를 비롯한 다양한 사료들을 함께 다뤘고 이를 통해 왜관요 연구의 발판을 만들어냈다.

한편 왜관의 운영에 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⁵⁾ 왜관의 대일무역⁶⁾, 왜관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⁷⁾, 왜관 개시 상인의 활동 등 분야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연구되었다.⁸⁾ 이 중 미술사적인 관점에서는 고려다완의 전래와 성행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⁹⁾ 이후 임진왜란 후의 대일무역 도자와 일본 피랍 장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¹⁰⁾ 왜관 인근 지역의 도자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¹⁾

왜관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역시 여러 차례 이루어졌는데, 방병

-
- 5) 김강일, 「조선후기 왜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長正統, 「日韓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4, 1968. 金義煥, 「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 『東洋學報』 108, 1983. 양홍숙, 「17세기 두모포 왜관 운영을 위한 행정체제와 지방관의 역할」, 『한국민족문화』 31, 2008.
 - 6) 김동철,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향도부산』 10, 1993.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공목」,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 7) 이완영,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소고」, 『향도부산』 2, 1963. 장순순, 「조선후기 倭館에서 발생한 朝日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한국민족문화』 31, 2008 ; 「조선후기 왜관 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한일관계사연구』 54, 2016. 양홍숙, 「조선후기 왜관 통제책과 동래 지역민의 대응」, 『역사와세계』 37, 2010 ; 「‘범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왜관 주변 지역민의 일상과 일탈」, 『한국민족문화』 40, 2011. 김강일, 「왜관과 범죄: 접촉과 상호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1, 2012 ; 「근세 후기 倭館의 交奸事件과 데지마(出島)의 遊女들」, 『전북사학』 46, 2015.
 - 8) 김동철,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1998 ;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 상인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 세계』 46, 2014.
 - 9) 박형빈, 「고려다완의 일본전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현정, 「고려다완 연구사」, 『일본학논집』 28, 2012. 지세리, 「교토 건인사 소장 고려다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0) 방병선, 「효 숙종시대의 도자(陶磁)」, 『강좌미술사』 6, 1994 ;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미술사학연구』 232, 2001 ; 「조선 도자의 일본 전파와 이삼평」, 『백제문화』 32, 2003.
 - 11)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2009. 성현주,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한국민족문화』 33, 2009.

선¹²⁾을 비롯하여 권상인, 이승민, 카타야마 마비 등의 연구자가 각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했다. 왜관요에 대한 연구로는 왜관요 주문에 대한 연구¹³⁾, 왜관요 수습품에 관한 연구¹⁴⁾, 왜관요 위치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있다. 권상인은 왜관요가 운영되던 시기에 따라 어떤 주문이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하여 정리하였고¹⁵⁾, 이승민은 임진왜란 이후 대일 도자교역의 실체와 의의를 정리하였다.¹⁶⁾ 카타야마 마비는 킨세키쵸 [金石城]의 발굴품 연구를 비롯하여 두모포 왜관과 초량왜관에 있었던 왜관요의 위치까지 연구하였으며, 동아대학교가 소장한 왜관요 수습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¹⁷⁾ 필자 역시 줄고를 통해 왜관요의 운영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¹⁸⁾

본고에서는 위 연구에 기초하여 왜관요의 운영과 왜관요 운영에 쓰였던 물자의 이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왜관요의 개요와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왜관요를 운영하면서 필요했던 인원과 그들의 급여에 관해 정리한다. 이후 도자기를 만드는 주원료인 도토의 구청과 공급, 이동에 대해서 살피고, 마지막으로 주 연료였던 땀감의 수급과 이동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다.

12) 방병선, 「임란 이후 조선도자-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 도자문화의 교류양상』, 경인문화사, 2005.

13) 장기던 외, 「에도시대(江戸時代) 부산요(釜山窯)에 주문, 생산된 어본다완(御本茶碗)에 관한 연구」, 『차문화학』 31, 2016.

14) 김현지, 「조선후기 釜山 新官窯 연구-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신관요 수습유물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5) 권상인, 「倭館窯에 관한 小考」, 『차문화학』 32, 2016.

16)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체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17) 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주문 다완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24, 2010 ; 「釜山 古館窯에 대한 考察-位置, 技術, 그리고 意義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3, 2015.

18) 허현정, 「조선후기 왜관요의 운영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II. 왜관요의 개요 및 운영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는 대일 외교를 부산지역의 왜관으로 한정하여 단일화시켰다.¹⁹⁾ 왜관에서는 일본인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조선과 공·사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이 왜관 운영 임무는 대마번에서 주도하였다. 임진왜란을 막기 위해 가장 크게 노력했고 종전 이후 교섭 주체로 나섰던 대마번이 대일 외교를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에서도 반대가 없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의 사후에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도 도쿠가와막부가 도요토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조선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교역을 대마번이 전담하게 했다.

반면 대마번의 입장에서는 대마번 자체 생산 곡물로 번 내 사람들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국서조작사건까지 벌였던 그들에게 있어 조선과의 교역 독점은 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소규모 번에 지나지 않던 대마번의 위상을 높이 세울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이권이 맞물리면서 부산에서 왜관이 열리게 되었다.²¹⁾

대마번주는 세전선을 보낼 때마다 다양한 구청을 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인삼·우황 등 약재류, 호도·잣·녹두말(菉豆末) 등 과실 곡물류, 저포·대단(大沙)·비단 등 직물류, 준마(駿馬)·옹자(鷹子)·황앵(黃鶯)·야학(野鶴) 등 금수류, 성리학 서적·의서·불경 등 서책류, 호육(虎肉)·활리(活鯉)·대구어(大口漁) 등 어육류, 호피·옹피·양피·표피 등 피물류, 각종 색지 및 지필묵 등 문방구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았다.²²⁾

19) 이효원, 「17세기 후반~18세기 日關係 研究-倭館을 통한 銅輸入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8쪽.

20) 김강일, 앞의 논문 2012, 13쪽.

21)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7쪽.

그중에는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도자기를 단순하게 구청하지 않고 왜관요를 개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일본 내에서 조선산 도자기가 가지고 있던 높은 가치 때문이었다. 조선산 다완은 일본의 차노유[茶の湯] 문화와 와비[侘び] 사상과 어우러지면서 즐겨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본에서 고가의 상품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납치되고, 이삼평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활약으로 일본 자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에도 조선산 다완의 수요는 계속 유지되었다. 이러한 일본 고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마번에서 요청하여 건립한 것이 바로 왜관요인 것이다.

왜인가청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왜관요 관련 기록의 수는 1600년대에 13회, 1700년대에 3회 정도이다.²³⁾ 가장 이른 기록은 1639년의 기록으로, 모양(見樣)을 가지고 와서 장인, 백토, 땀감 등을 구해 관내에서 번조하길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요청에 응해 조선에서는 장인을 보내고 왜관의 밖에서 번조를 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조선은 1600년대의 구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한다.²⁴⁾ 조선이 왜관요를 열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혜(施惠)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 은혜를 베푼다는 모양새를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700년대의 기록은 이와 매우 다른데, 이때부터 조선은 갖은 이유를 들어 되도록 왜관요를 열어주지 않으려 했다.²⁵⁾ 이에 따라 왜관요로 들어가는 도토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면서 가마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후 1718년 대마번에서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자 왜관요는 1743년까지 대마번의 초닌[町人]에 의해서 운영되

22) 김동철, 『해제』, 『국역 倭人求請牒(I)』, 부산광역시, 2004, 8~9쪽.

23)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29쪽.

24) 『왜인가청등록』 1639년 8월 16일 동래부사 장계.

25)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30쪽.

다가 끝내 폐요하게 된다.²⁶⁾

왜관요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대마번주가 일본 내 인사들로부터 자기에 대한 주문을 받는다. 그러면 이 주문은 대마번을 거쳐 부산으로 들어갔다. 구청을 받은 부산 동래부사의 장계가 경상감사를 거쳐 예조로 올랐고, 예조와 비변사의 논의를 거친 다음 왕의 승인이 떨어지면 개요했다. 그러면 조선에서 물자와 인력을 대어 가마를 운영했고 대마번은 조선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예조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왜관요는 개요 할 수 없었으므로 왜관요의 개요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주체는 바로 조선이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금전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바로 후술할 인건비이다. 대마번은 일본 도공과 조선 도공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어떤 기록에서도 도토 및 땀감을 구하는 데에 돈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토와 땀감은 조선에서 무상으로 보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청이 승인된 도토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예조에서 각 도와 해당 지방 수령에게 조치하여 개요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했다.²⁷⁾

이렇게 제작된 도자기는 대마번 킨세키쵸[金石城]에서 그 질을 평가 받았으며, 이후 일본 내 주문자에게 무상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조선 자기 공급은 대마번의 위상을 크게 올리는 데 이바지했으며 2만석 정도의 지방 소규모 번주에 지나지 않았던 대마번의 입지를 중앙의 다이묘[大明]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26) 片山まび・永井正浩, 『韓國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の釜山窯出土片について』, 『東洋陶磁』, 2014, 94~96쪽.

27) 『왜인구청등록』 1663년 1월 27일.

Ⅲ. 인원

왜관요에서 활동했던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은 단연 도자 장인, 즉 사기장이다. 장인은 조선인 사기장과 일본인 사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작업도 함께 하였다. 물론 이때 왜관요에서 활동하게 될 조선인 사기장 역시 조선에 구청하였다. 대마번에서는 일본인 사기장을 도공두로 삼았고, 그와 조선인 사기장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사료인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과 『종가문서(宗家文書)』에 의하면 일본은 도공두, 화공왜, 조각왜 등을 보냈고, 조선의 사기장은 이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기술과 일본의 기술이 서로 어우러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표 1> 사기장과 땔감의 구청

날짜	올린이	장인가청	비고
1639년 8월 16일	동래부사	하동, 진주의 장인	
1640년 5월 19일	역관 홍희남과 김근행	장인	
1644년 6월 12일	경상감사 임담	장인 5-6명	
1660년 4월 20일	동래부사 정태제	사기장, 옹기장	
1681년 3월 9일	동래부사 남익훈	사기장 2명	대마번에서 감역왜 2인, 공장왜 2인, 화공왜 2인, 조각왜 2인 파견
1687년 7월 2일	동래부사 이항	양산의 사기장 1명 기장의 사기장 1명	
1689년 3월 5일	경상감사 이세화		

1690년 5월 26일	경상감사 오시대		조선에서 거절
1696년 7월 11일	경상감사 이선부		조선에서 거절
1698년 8월 4일	경상감사 이언기	장인 두세 명과 일꾼 대여섯 명	대마번에서 차지왜 1인, 번조왜 3인, 화공왜 3인 파견

상단의 표는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에 기록된 조선인 사기장의 구청 사례²⁸⁾이다. 물론 이 내용이 왜관에서 구청한 내용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사료에 등장하는 것보다 왜관요의 개요횟수가 훨씬 더 많았으며 저 구청을 모두 승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개요 시기와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외려 구청한 장인의 수는 기록된 구청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⁹⁾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대마번에서 사기장을 구청할 때 지역을 선정하여 구청했다는 점이다. 왜관요에서 필요로 하는 장인을 구청함에 있어 장인의 지역명이 지정된 것을 보면, 당시 일본의 조선 내 지방 도자에 대한 이해가 높았으며 일본이 조선 도자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사기장 및 옹기장의 파견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는 점이다. 후술하겠으나 일본에서는 흙의 구청 역시 그 종류를 가려서 섬세하게 구청하였는데, 장인 역시 사기와 옹기의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구별하여 구청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옹기장과 사기장을 함께 구청한 기록을 보았을 때, 일본에서 제작을 요구한 그릇 중 일부에 옹기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표 1>의 내용은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37쪽의 표 7을 인용했다.

29) 泉澄一, 앞의 책, 1986, 278~279쪽.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인원 구성이다. 1698년의 기록을 살펴보면 ‘장인 두세 명과 일꾼 대여섯 명’을 구청한다. 장인뿐만 아니라 왜관요에서 쓰일 일꾼들까지 함께 조선에 구청한 것이다. 이들이 일본에서 파견된 번조왜, 화공왜 등과 함께 활동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장인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일본에서 번조를 전문으로 하는 왜인과 화공을 전문으로 하는 왜인이 계속 파견되는데도 그와 비슷한 수의 인적자원을 조선에도 요구했다는 것은, 조선의 기술과 일본의 기술을 도자기 제작에 함께 투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파견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 중 몇 가지를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추론할 수 있다. 『조선방매일기』에는 세이무이니[セイムイニ], 스즈테키[スツテキ], 사우메이[サウメイ], 손비니[ソンビニ]³⁰⁾ 등의 이름이 카타카나로 적혀있다. 이들의 정확한 한국어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만, 한국에서 쓰던 이름을 일본어로 음차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이무이니의 경우에는 ‘성문’ 등의 이름을 음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중 스즈테키의 기록을 살펴보면, 스즈테키와 사우메이가 병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들의 출신지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일본인 도공들이 스즈테키의 병문안을 하러 간 것으로 적혀있다.³¹⁾ 조선인 도공들이 병이 나면 왜관요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리라는 것, 그리고 조선인 도공과 일본인들 사이에 친분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 등을 이 대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30) 泉澄一, 앞의 책, 1986, 565~566쪽.

31) 泉澄一, 앞의 책, 1986, 554쪽.

파견된 장인들의 신분은 양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마번으로부터 구청을 받으면 예조에서는 경상 감사에게 이에 해당하는 사기장을 보내 주도록 명령했다. 이 사기장들의 근무 형태가 어떤 규범을 따른 것인지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양상으로 미루어보건대 장역을 지는 것과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장인들의 부역일수는 20일을 기준으로 하였다.³²⁾ 여기서 풍년이 들면 10일을 더하여 30일간, 흉년이 들면 10일을 감하여 10일간 부역하도록 하였다. 왜관의 운영 기간은 비정기적이었고, 구청을 받은 예조에서 허락해야 열렸기 때문에 이들이 왜관요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하지만 조선의 사기장들이 왜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변에 대한 관리는 모두 조선의 방식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관요의 또 다른 구성원이었던 일본 측의 도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본에서는 도자 제작 과정의 전반을 담당하는 도공두를 일본 측 도공으로 선정하여 보냈다. 이 과정에서 도공두와 함께 화공왜, 번조왜, 조각왜 등이 함께 조선으로 건너왔다. 화공왜는 도자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번조왜는 도자를 번조하는 일을 조선 도공들과 협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파견된 주요 도공두들로는 오오무라 린사이[大浦林齋, ?~?], 나카야마이산[中山意三, ?~?], 후나바시겐에쓰[船橋玄悅, ?~1664], 아비루모산[阿比留茂山, ?~1694], 히라야마이춘[平山意春, ?~?] 등이 있었다.³³⁾

이들은 대부분 대마번의 출신이었으나 겐에쓰와 같이 교토 출신 도

32) 『世宗實錄』 57卷 世宗 14年 4月 17日 己巳 “一 曾降便民條畫內 十月始役 限二十日 豐年加十日 下年減十日 春節毋得役民 然因春秋兩等貢(鈔) [鐵] 炒鍊 方春農務最緊之時 役於鐵場 或二十日或三十日 裹糧往來 失時廢事 誠爲未便 幸今新都完備 營繕稍減 乞但於秋節 一度炒鐵 以副民望”.

33)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40쪽.

공이 왜관요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작도(作陶)를 하지만, 조선의 사기장처럼 사기장을 천직으로 삼는 자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오히려 이들은 일본의 다도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왜관요에서 제작하는 도자의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작 지시를 내리는 등의 최종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³⁴⁾ 자연스럽게 그들은 조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본 스타일을 품은 도자를 제작하려고 하였을 것이며, 도공들의 출신에 따라 교야끼[京焼]를 비롯해 일본 도자와도 유사한 형태의 도자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받았던 주문서를 살펴보면, 왜관요에 들어간 주문의 종류가 단순히 일본 다도에서 쓰이던 다구(茶具)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생활 자기로까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왜관요의 주문서로는 현재 두 개가 전해지는데 『어조물공(御詔物控)』과 『제방어호지어소물어주문류(諸方御好之御燒物御注文榴)』이 그것이다. 이 주문서에는 주문자의 이름과 기형, 유색, 장식 디자인까지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왜관요 운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도자기가 기재되어있는 것과 다름없기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 말할 수 있다.³⁵⁾

주문서에 등장하는 모란문(삽도 1.)과 17세기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던 가노파의 모란(삽도 2.)을 비교하면 이러한 양상을 더욱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다. 모란꽃잎의 형태가 가노파의 것과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가노파의 모란과 유사한 형태를 교야끼의 장인 닌세이[仁清, ?~?]의 작품(삽도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보면



<삽도 1> 주문서 모란 주문

34) 泉澄一, 앞의 책, 1986, 203~205쪽

35)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75쪽.

대 주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화공 혹은 도공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다카라츠쿠시[宝盡くし], 국화, 문자문, 모란문, 송죽매, 운학, 승림문, 매화문, 사자문, 대나무, 소나무, 광언교 등과 같은 수많은 문양이 주문서에 직접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보았을 때,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디자인들이 전적으로 조선 왜관요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⁶⁾

그렇다면 이 도공들의 활동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었을까? 조선의 사기장들은 역(役)의 형태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선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일본은 도공이 부산에 상륙해 있는 기간만큼의 합력은(合力銀)과 부지미(扶持米)를 도공에게 지급하였다.

이 합력은은 조선인 도공에게도 똑같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왜인구청등록』의 기록을 보면 요포(料布)를 주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³⁷⁾,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포는 보통 급료로 주던 무명이나 베를 일컫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에서 도공들에게 합력을을 지급한 서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삽도 2> 花卉図屏風(部分)
海北友松 17c 紙本金地若色
六曲一双 178x361.5cm
妙心寺 京都



<삽도 3> 色絵牡丹図水指
仁清 東京国立博物館

36) 주문서의 내용과 주문의 양상에 대해서는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63~156쪽. 참조.
37) 『倭人求請證錄』 1640년 5월 19일.

<자료 1> 朝鮮方每日記³⁸⁾

延寶4年(1676) 六月十三日條

覺

一御合力銀貳百目

一上下七人

內四人ハ御國元

同三人ハ朝鮮

靑柳善右衛門

一積前八俵

一御合力銀貳百目

一上下五人

內貳百目

同三人ハ朝鮮

中庭茂三

內壹人ハ細工人下代並ニ茂三上下之內ニ而相渡ル

一積前八俵

一御合力銀百五拾匁

一上下四人

內貳人ハ御國許

同貳人ハ朝鮮

國部知齋

一積前五俵

一御合力銀三枚

一上下四人

內二人ハ御國許

同二人ハ朝鮮

長留源六

一積前六俵

一同斷

松村郡右衛門

松清太兵衛

梅野伊兵衛

藤川茂兵衛

大工吉郎左衛門

仁兵衛

右五人ハ町覆如先例申付積前壹人ニ三俵ツ, 免之則書付勘定方江遣之.

위의 사료는 1676년 『조선방매일기』의 사료로, 당시 도부(渡釜)했던

38) 泉澄一, 앞의 책, 278~279쪽.

도공두 및 도공두의 수하들에게 지급된 합력은에 대해 기재되어있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표 도공두는 아오야기세이에몬[靑柳善右衛門, ?-?]과 나카니와모산[中庭茂三, ?~1694]³⁹⁾ 두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밑으로 아오야기세이에몬 산하에 일곱 사람, 나카니와모산의 산하에 다섯 사람이 파견되어있다. 그 외에 쿠니에치사이[國部知齋], 나가토메겐로쿠[長留源六], 마츠무라군에몬[松村郡右衛門] 등의 이름이 보인다.

아오야기세이에몬과 나카니와모산에게 합력은으로 각각 은 200문에 쌀 8섬을 준다고 적혀있다. 은은 도공두에게, 쌀은 이들 산하에 배정된 일곱 명과 다섯 명에게 각각 나누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1676년 조선의 물가로 환산하면 은 200문은 은 20냥에 달했으며, 은 20냥은 당시 면포 23.4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⁴⁰⁾ 이 시기 왜관요에는 총 열 명의 도공, 스물네 명의 세공인 등 약 마흔 명의 인원이 넘어와 있었고, 이외에 왜관요에서 일했을 조선인 도공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히 조선인과 일본인 도공 사이에 차별을 두었다는 문장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 외에 다른 사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일본인 도공과 인부가 받는 노임은 그 위계에 따라 조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7세기 후반 조선의 장인들은 국가행사를 치를 때 얼마의 노임을 받고 일했을까. 조선에서 도감이 열려 외방 장인들이 일을 하던 한 달에 쌀 9두, 면포 1필을 지급했으며, 이외에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39) 아비루모산[阿比留茂山, ?~1694]과 동일 인물이다. 에도시대 전기의 도공이다. 대마번 나가사키현 부중 번주 소의성, 외진 부자를 모셨다. 1664년 부산에서 자기 제작에 종사하였는데 겐에쓰가 졸하였기에 그 다음해에 도부하여 왜관에서 번사가 되었다. 이후 1676년에서 1685년까지 수차례 왜관요의 번조에 참여하였다. 대마번주 종의정에게서 중정정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40) 1676년의 물가는 은 1냥 = 면포 1.17필이었다. 유현재, 『조선후기 鑄錢정책과 재정활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91쪽.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⁴¹⁾ 분원의 번조 장인의 경우, 그 해에 분원으로 파견되지 않은 외방 장인들은 번포를 내어 바쳤다. 하지만 외방 장인들에게서 거둬들인 번포는 턱없이 부족했고, 3필씩 내던 번포가 1706년 이후에는 2필로 줄어들면서 임금이 더욱 줄어들었다. 이때 분원 사기장의 임금은 4.2전에 불과했고, 적은 임금으로 인해 분원 사기장들의 불만과 고통이 커졌다.⁴²⁾ 이랬던 조선 내부의 사정과 왜관요의 사정을 비교해본다면, 왜관요에서 근무했던 조선인 사기장들은 조선 내 업무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원료 및 연료

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적 자원으로 도토와 땔감이 있다. 왜관요에서 구청한 목록 중에는 도토뿐만 아니라 유약의 재료가 되는 약토도 있었으며, 왜관요에서 소용되는 땔감도 있었다. 본 장절에서는 이 원료들의 수급지와 수급 경로 등을 정리해보겠다.

1. 도토

1) 도토의 수급요청

상단의 표는 『왜인가청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도토의 구청과 그에 따른 조선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⁴³⁾ 이 표에 등장하는 도토의 구청에서 우리는 여러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사기장의 구청과 마찬가지로

41) 이영훈 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56~58쪽.

42) 박은숙, 「분원사기장의 존재양상과 개항 후 변화」, 『한국근대사연구』 67, 2013, 202~206쪽.

43)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47쪽 <표 9>.

<표 2> 도토의 구성

날짜	올린이	도토구성	비고
1639년 8월 16일	동래부사	백토	
1640년 5월 19일	역관 홍희남과 김근행	각종 사토	
1644년 6월 12일	경상감사 임담	백토 80석, 약토 10석, 황토 50석	
1678년 8월 22일	동래부사 이복	각양색토	조선에서 거절
1681년 3월 9일	동래부사 남익훈	약토 70섬, 백토 610섬 (5말 1섬)	
1687년 7월 2일	동래부사 이항	경주 백토 45섬, 진주 백토 45섬, 곤양 백토 45섬, 하동 백토 45섬, 김해 적감토 90섬, 울산 약토 90섬(5말 1섬)	
1689년 3월 5일	경상감사 이세화	백토 30섬	
1690년 5월 26일	경상감사 오시대	곤양 백토 22섬, 하동 백토 13섬, 진주 백토 22섬, 김해 웅기토 15섬, 갈색토 62섬, 경주 백토 44섬, 울산 약토 55섬(10말 15섬)	조선에서 거절
1692년 10월 7일	경상감사 민창도	경주 백토 100섬, 울산 약토 100섬, 김해 적감색토 120섬, 하동 백토 40섬, 진주 백토 40섬, 김해 웅기토 30섬, 곤양 백토 40섬(5말 1섬)	
1696년 7월 11일	경상감사 이선부	경주 백토 100섬, 울산 약토 100섬, 김해 적감토 120섬, 웅기토 30섬, 하동 백토 40섬, 곤양 백토 40섬, 진주 백토 40섬 (5말 1섬)	조선에서 거절
1698년 8월 4일	경상감사 이언기	각색 흙	
1698년 8월 29일	경상감사 이언기	경주 백토 30섬, 진주 백토 20섬, 곤양 백토 20섬, 김해 웅기토 10섬, 하동 백토 10섬, 울산 백약토 6섬, 도합 96섬 (10말 1섬)	

로 도토의 산지를 지정하고 있다. 대마번에서는 경주, 곤양, 김해, 하동, 울산 등의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에 따라 흙의 양을 나누어 왜관요에 조달해 주기를 원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생긴다. 우선 첫 번째는 당시 지역별로 생산되는 자기의 태질 차이를 일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진주, 곤양, 하동, 김해 등은 조선시대에 지방요가 활약했던 지역이다. 물론 왜관과 가까운 경상도 인근이기 때문에 왜관요를 운영하기 위한 도토를 경상도 지방으로부터 지원받기 원했다는 점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지역을 구별하고 그 양을 나누어 구청한 것을 보면, 이미 일본은 조선의 지역별 흙 생산량과 그 방법, 그리고 흙의 특성까지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연구가 있었다는 것, 왜관 관수의 활동 중 조선에 대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것⁴⁴⁾, 마지막으로 피랍 사기장들에 의해서 조선 흙의 정보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을 것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⁴⁵⁾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왜관요 설치 이전 15세기경에 일본에서 주문한 자기를 생산했던 지역 중 전라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요청이 구청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정리된 표는 『왜인가청등록』에 기반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구청까지 다 기술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 중 전남 고흥⁴⁶⁾의 흙이나 사기장을 요청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조심스럽게 추정하자면 임란 이후 조선에서는 경상도에만 왜관으로 왜

44) 『館守條書』 4條, “朝鮮國并北京筋之風設共ニ此方御心入二可罷成儀者不依虛實沙汰之趣被聞立便守之節書付を以內々可被申越候事”.

45) 이미숙, 『일본 규슈 지역 조선 피랍사기장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2~63쪽.

46) 박형순, 「고흥 운대리 분장분청사기의 현황과 성격 -운대리 7호를 중심으로-」, 『동북아 분장분청사기의 변천과 고흥 운대리 분장분청사기의 의미』(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국제학술대회), 2017, 152쪽.

공을 보내는 하납 체제가 있었고⁴⁷⁾, 왜관은 하납 체제를 통해 들어오는 물자를 받아서 활동했기 때문에 경상도에 한정된 물자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세 번째는 도토를 구청할 때마다 그 단위가 바뀌어왔다는 것이다. 1681년, 1687년, 1696년의 경우에는 5말을 1점으로 계산했지만, 1690년, 1698년의 경우에는 10말을 15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매번 흙의 양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는 17세기 말경에 이르러 9말을 1점으로 삼고 있다.⁴⁸⁾

일본에서 이렇게 1점의 기준을 바뀌가면서까지 흙을 요청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농번기 등에 백성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구청을 거절했던 조선 정부를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흙의 구청이 보통 여름에 많고 가을에도 보이는데, 여름은 농번기로 백성들로 하여금 흙을 나르게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가을은 당연히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흙의 양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이 많은 양의 흙이 왜관을 빠져나간 기록 역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흙이 온전히 왜관요 운영에만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며, 그렇다면 왜관요의 규모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47) 『承政院日記』 1046冊 英祖 25年 7月 20日 丙寅, “所謂上納 卽上納於京司者也.所謂下納 卽以倭供之需 下東萊者也”.

48) 『承政院日記』 331冊 肅宗 14年 9月 3日 壬申, “宋奎濂 以司饗院官員 以提調意啓曰 魂殿祭器及山陵進排明器等器 今當別爲燔造 而年例磁器所燔晉州楊口等白土 本來未盡 比諸宣川慶州之土 優劣懸殊 莫重祭器明器 以此品劣之土 決難精燔 宜慶兩邑白土各二石 依甲寅癸亥年例 令本道掘取水飛 九斗作石 趁速輸送之意 移文知委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399冊 肅宗 27年 8月 14日 己巳, “李思永 以司饗院官員 以提調意啓曰 魂殿祭器及山陵祭器 今當及時 別缺而年數字缺楊口土 不合於祭器燔造 故每以宣川慶州等邑土 掘取燔造矣 今亦依甲寅年例 兩邑白土各二十石 水飛九斗作石 罔夜陸運上送之意 慶尙平安等道監司處 移文知委 何如 傳曰 允以上燼餘”.

합리적이다.

네 번째는 흙의 내화성, 점력, 소성 등의 특성을 구별하여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토, 적감색토, 황토, 옹기토 등 흙의 색상이 구별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물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백토이지만 적감색토와 옹기토에 대한 요청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적감색토와 옹기토는 김해에서 구했으나 나머지 지역에는 백토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흙의 구청은 곧 주문서의 내용과도 이어진다. 주문서는 백자, 청자를 구별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다완의 경우에는 유약의 흘러내림까지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번은 이처럼 다양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그만큼의 다양한 흙 역시 구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 번째는 울산 약토의 문제이다. 울산 약토에 대한 기록은 이 『왜인구청등록』의 기록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왜인구청등록』에서 말하는 약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약토는 대부분 부엽토로서 유약의 재료로 활용되었다. 주로 산의 계곡, 시냇가, 저수지, 논 등에서 채취하며, 유약화가 되었을 때 낙엽의 부식으로 발생한 무기질이 검정, 노랑, 초록 등의 색을 낸다. 다만 이것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⁴⁹⁾

구청되는 약토로 일반 약토와 백약토, 두 가지가 요청되고 있는데 울산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특별히 약토를 채굴하지는 않고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의 여러 옹기장과 사기장들을 만나보았지만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그 중 신한군 사기장으로부터, 울산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갈참나무 계열의 잎이 부식되어 만들어진 흙이 약토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49)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219쪽.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조선의 대응이다. 조선은 1600년대 의 왜관요 구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마번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도토의 경우에는 1600년대에도 거절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서계의 양식이 옳지 않은 경우, 그리고 흉년에는 거절한 경우가 있다.

서계의 양식이나 절차 부분은 조선 정부에서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것이 올바르게 않으면 반드시 구청을 거절하였다. 하지만 1696년에는 “흉년을 당하여 수백 섬의 흙을 운반하여 주는 사이에 기근이 든 나머지 백성의 힘이 고갈되어 실로 지탱할 형편이 아니다.”⁵⁰⁾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마번에서 흙의 이동이나 구매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조선에서 시혜적 입장을 견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흙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은 오로지 조선과 경상도 백성의 몫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을 경우 조선 정부에서는 대량의 흙 운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 도토의 산지

대마번에서 구청해온 도토는 경주, 하동, 곤양, 진주, 울산, 경주 등이다. 물론 현재 이 지역에서 왜관요의 소용으로 채굴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상의 기록이나 발굴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에 고령토가 채굴되고 있는 곳은 경북 경주 광명, 경북 경주 안강, 경북 경주 양남, 경북 달성 옥보, 경북 상주 화동, 경북 영덕, 경북 울진, 경북 청도 금천, 경북 청송 부남, 경북 청송 부동, 경북 포항, 경북 경주 외동, 경북 선산 고아, 경북 성주 가천, 경북 성주 수륜, 경북 울진 원남, 경북 칠곡 북삼, 경남 고성군 고성, 구만, 경

50) 『왜인가청등록』 1696년 7월 11일 예조 첨부 계목.

남 산청 금서면, 경남 산청 단성면, 경남 산청 오부, 경남 양산 산북, 경남 의창, 경남 하동 북천면 경남 하동 옥종면, 경남 함양 유림, 경남 함천 가야면, 경남 함천 가회면, 경남 김해 상동, 경남 밀양 산내, 경남 통영 도산, 경남 통영 용남, 부산 강서 지사, 부산 기장 장안 등이다.⁵¹⁾

또한 왜관요에서 도토를 요청했던 지역 중에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했던 분원에서 소용되는 흙을 생산하던 곳도 있었다.⁵²⁾ 토맥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선 후기 왜관요가 운영되던 시기에도 이 지역들과 유사한 지역에서 도토가 채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1) 조우석 외, 『도자기 태토의 주요 산지조사 및 광물학적 특성분석을 통한 양질의 태토 모델 구축』, 국립중앙과학관, 2010, 30~34쪽.

52) 『承政院日記』 372冊 肅宗 23年 7月 26日 甲辰, “又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燔造所用白土二百五十石 築釜土二十石, 法斤土十五石 仇木灰十五石 例於秋間 下送郎廳於晉州地 看審掘取 計數留置本州 翌年春 一半則賃船裝載 趁早上送 以爲春等燔造之用 一半則添載於稅船上送 以爲夏秋等繼用之地矣 上年春本道以土脈斷絕 掘取之時 多費人力 遠地輸運之際 耗費亦多之意 粘移本院 且於五月間 自晉州發送白土所載船隻 覆沒於全羅道靈光地 秋等所用白土 勢難更爲掘取於晉州 運致燔所 故發送匠人于陰城忠州等地(하략)”. 『承政院日記』 471冊 肅宗 38年 9月 9日 己丑, “金演 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進上磁器所用水乙土 年年掘取於昆陽地 而近來土脈垂盡 本郡有所頗報 故上年 發遣郎廳摘奸 使之看審本郡土脈形止 果爲乏絕 則其隣近晉州河東等地採得 以爲看品試燔後 馳報本院 入啓變通之地矣 其時郎廳所報內 昆陽地 累處掘地 窮搜極覓 猶有未准於應納之數者 傍搜於河東地 僅得若干土脈 得以充數上納云 第聞土脈不敷 今番掘得 似難云 只送邊首匠人 准數採得 其勢未易 莫重進上燔造一款 極涉可慮 即今秋節已深 嶺路且遠 事勢急迫 本院郎廳一員 更爲發送 使之摘奸昆陽河東兩邑土脈 斯速掘取 看審土品 以爲試燔上送之地 何如 傳 允”. 『承政院日記』 538冊 景宗 2年 3月 27日 壬子, “又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上年八月 因大臣及本院提調閔鎮遠陳達 晉州昆陽白土掘取停罷 以除輸運之弊, 依京人李慶夏陳告, 掘取東西近郊白土, 燔造磁器事定奪矣 到今春燔之節, 李慶夏所得白土 燔造沙器 則色品麤惡 不合於御用 故下送李慶夏及當初看色次試燔之匠手 累次更燔 至六七釜 而色品終始不好 無異於常沙器 進上重事 事甚狼狽 此專由於李慶夏瞞告國家之致, 李慶夏及匠人等, 令攸司竝囚禁科罪, 今年春燔, 則不得已以前日晉州昆陽等遺儲之土 依前燔造前頭繼燔之資 則雖有些少弊端 晉州昆陽之土 令本道依前規式 趁今年秋燔前 輸運上納事 急速知委 何如 傳曰 允”. 『續大典』 公典 雜令條, “廣州 楊口 晉州 昆陽 最宜燔土處”.

3) 도토의 이동경로 및 수급체제

그렇다면 도토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관으로 들어왔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모포 왜관의 밖에서 운영되던 왜관요는 1644년 왜관 내로 이동하게 되었고, 1678년에 이르면서 초량왜관으로 이전한다. 두모포에 있었던 왜관이 초량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는 두모포 자체의 지대가 낮고 침수가 잦게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전 협상의 마지막에는 큰 불이 여러 번 나서 전소되었고 결국 초량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두모포 왜관요의 개요 횃수가 22번인 데 비해 초량왜관의 왜관요 개요가 34번으로 거의 매년 왜관요를 개요할 수 있었던 것은, 초량왜관으로 왜관요를 이전하면서 부지를 기획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두모포 왜관 시절에 띄엄띄엄 개요를 하던 것에 비해 초량왜관 시기에 거의 매년 개요가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물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주변 환경 때문일 것이다. 초량왜관의 바로 앞에는 부산항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낙동강의 하류가 흐르고 있다. 항구를 통한 해운, 그리고 낙동강을 이용한 수운을 모두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주, 울산, 기장, 부산을 통하는 대로 역시 부산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육운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조운의 경로와 육운의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왜관으로 도토가 이동한 직접적인 조운 경로 혹은 자료는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토의 양이 대단히 많았으므로, 그 대량의 도토가 채굴지와 중간 이동지, 도토 적재장소, 마지막으로 왜관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양을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은 당시에 경상도에 있었던 하남 시스템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도토의 양이 많았다. 도토는 절대로 한 번에 대량을 운반할 수 없었

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에 도토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한데, 지금 남아 있는 지방읍지 기록에서는 도토 전용 창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당시 쓰이고 있던 창고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인근의 도토 적재에 유리한 다른 유사 창고를 사용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조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다. 배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선착장이 필요하므로, 무역의 중심지인 왜관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있었을 것이다. 광주 분원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양구, 진주, 춘천, 홍천, 인제, 낭천 등지에서 흙이 이동했는데⁵³⁾ 이 경우 세선, 지토선, 임선 등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선은 세금을 나르던 배이며, 지토선은 지방의 토민이 가지고 있었던 배로 세곡을 운반했다. 임선은 임대한 배를 일컫는 말이다.⁵⁴⁾ 그렇다면 왜관요에서도 분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도토를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분원으로 가는 도토의 이동에 세선이 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관으로 이동하는 도토 역시 하남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세선을 사용했을 것이므로, 이는 도토가 하남의 시스템을 통해 운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표 3> 『경국대전』중 배의 크기(영조척 : 1척 = 31.19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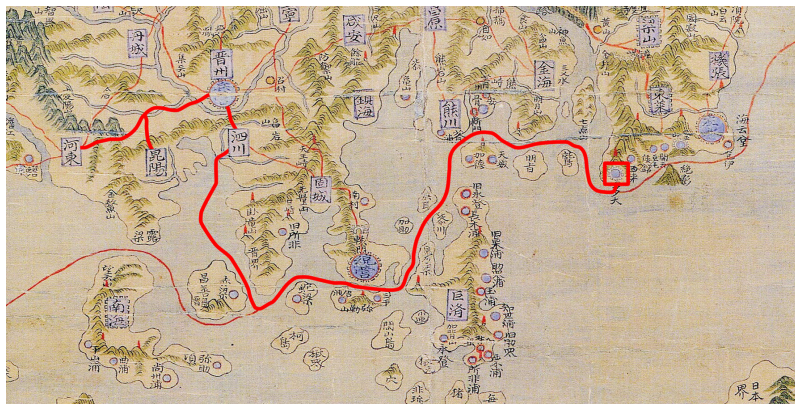
	소 선	중 선	대 선
너 비	6.3척	13.6척	18.9척
길 이	18.9척	33.6척	42척

경남지역에 관련되어있는 배에도 세선, 지토선 등의 명칭이 보인다. 그렇다면 한 척의 배에는 얼마의 쌀을 실을 수 있었을까. <표 3>에 나오

53) 정두섭, 『조선후기 양구백토의 생산과 운송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5, 2012, 참조.

54) 최완기, 『조선후기 지토선의 세곡임운』, 『한국사연구』 57, 1987, 93쪽.

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 사용되던 배의 크기 등이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 배들은 조선 후기 무렵엔 한 척에 100석 분량의 쌀가마나도 실을 수 있었다.⁵⁵⁾



<삼도 4> 진주, 곤양, 하동 도토 이동경로

그렇다면 왜관요의 도토 구청지였던 진주, 곤양, 하동, 김해, 경주, 그리고 울산에서의 도토 이동은 과연 어떤 경로를 이용했는지 추정해보자. 우선 진주, 곤양, 하동을 한 데 묶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진주, 곤양, 하동은 예로부터 광주 분원에도 백토를 진상해오던 곳이었다. 그만큼 양질의 백토를 생산하던 곳이었으며, 왜관요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도토를 가장 자주 구청했다. 진주의 경우에는 남강을 끼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도토가 운반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에서 출발한 도토가 조운을 통해 왜관으로 이동하는 방법에는 제법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따른다. 우선 남강을 이용해서 사천만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육로를 통해서 사천까지 이동한 후 다시 해운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있다. 곤양과 하동에서는 사천만까지 닿을 만큼 커다란 강이 보이지 않는다. 수운

55) 최완기, 위의 논문, 1987, 97쪽.

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려 육운을 이용해 사천만까지 나간 뒤 사천만에 있었던 가산창과 장암창을 이용하는 운송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에서 도토가 한 데 모여 다시 부산 왜관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김해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김해 인근의 불암창에 도토가 모였다가 낙동강 수운을 타고 나와서 바로 부산 왜관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에서 활동했던 영남선의 규모는 대선부터 소소선까지로 나뉘어 있고,⁵⁶⁾ 낙동가의 하류는 유량이 언제나 넉넉하며 바로 바다와 닿아있기 때문에 김해에서 수운을 이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과 경



<삽도 5> 김해 도토 이동경로

주는 바다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채굴되는 장소가 울산과 경주의 안쪽에 있어 바다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경우는 육운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육운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경국대전』의 역마조에서는 말 한 마리가 100근(약 60kg)을 옮길 수 있었다.⁵⁷⁾ 건조된 백토 1석은 약 144kg에 달했고 백토 1석을 옮기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말이 필요했다. 마찬

56) 『萬機要覽』을 살펴보면 영남선의 규모를 지정하고 있다. 대선은 16과 이상, 차대선은 13~16과, 중선은 10~13과, 차중관선은 7~10과, 소선은 4~7과, 소소선은 3과 이하였으며 적재량은 대선이 250석, 중선이 200석 소선이 130석이였다. 『世宗實錄』 113 卷 世宗 28年 9月 16日 辛巳, “漕轉船所載石數 不曾詳定 故船主不計船之大小 多載米穀 暫遇風浪 易致敗沒 請自今長五十尺 廣十尺三寸以上爲大船 載米二百五十石 長四十六尺 廣九尺以上爲中船 載二百石 長四十一尺 廣八尺以上爲小船 載一百三十石 以爲恒式 若數外加載者 并官吏論罪 從之”.

57) 『經國大典』 卷 4 兵典 驛馬.

가지로 『경국대전』에서는 인부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의 양도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한 명당 약 40kg을 질 수 있었고⁵⁸⁾ 도토 1석을 옮기기 위해 약 4명의 사람이 필요했다. 인부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부역은 경상도 도민들에게 상당히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정부에서는 기근이 들었을 때 도토의 공급을 거절했다.

육운으로의 이동에는 대부분 말과 소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⁹⁾ 특히 경주와 울산 등지에서 흙을 운반할 때에는 육운으로 운반했을 텐데, 그 이유는 경주와 울산, 그리고 기장을 경유하는 큰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고』의 황산도에 근거하여 노곡(원본에서 명칭 빠져서 한자 해석해서 넣었음)(蘆谷;경주) - 굴화(掘火), 간곡(肝谷;울산) - 아월(阿月), 신명(新明;기장) - 소산(蘇山), 휴산(休山;동래)의 경로를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삽도 6> 경주 울산 도토 이동경로

2. 땀감

<표 4>는 『왜인구청등록』에 기록된 땀감의 구청 부분을 정리한 것이

58) 『經國大典』 券 2 戶典 賦役.

59) 『承政院日記』 129冊 孝宗 4年 11月 30日 “頃日奉使往來時, 路由原州, 本州大小人民等, 齊訴於路頭, 乃司饗院白土事也. 載運, 則馬至於二百餘馱, 所入開土軍, 亦多至五百餘名云, 此他邑所無之大役”

60)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58쪽.

다.⁶¹⁾ 땔감은 특정한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고, 송토목, 소목 등으로 정리되어 구청되었다. 이러한 땔감은 부산 인근 지역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 주변으로도 작은 산들이 많이 있고 경상도 자체가 목재가 부족한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굳이 외부지역에서 땔감을 얻지는 않았을 것이다.

<표 4> 땔감의 구청

날짜	올린이	땔감구청
1639년 8월 16일	동래부사	소목
1640년 5월 19일	역관 홍희남과 김근행	소목
1644년 6월 12일	경상감사 임담	소목
1687년 7월 2일	동래부사 이항	송토목 30짐
1689년 3월 5일	경상감사 이세화	땔감
1690년 5월 26일	경상감사 오시대	땔감
1696년 7월 11일	경상감사 이선부	장작
1698년 8월 4일	경상감사 이언기	송토목

현재 두모포 왜관 당시 왜관요의 위치가 불분명하므로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초량왜관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해보면, 부산 영선고개에는 쌍산이 있고 그 가운데를 노치라고 불렀다. 이 노치에 시탄고가 있었는데 왜관에서 소용되는 땔감을 이곳에서 보관했다. 그러므로 왜관요에서 소용되는 땔감 역시 시탄고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²⁾ 땔감이 부산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면 동래부 주민들이 노역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땔감에 관해서도 대마번에서 특별히 노임을 지급하거나 땔감의 값을 지급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즉 왜관요에서 사용되었던 땔감 역시 도도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시혜적 입장으로 배풀었다

61)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62쪽, <표 12>.

62) 허현정, 앞의 논문, 2019, 63쪽.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중에 주목할 만한 기록은 1687년의 구청으로, 이 구청에서는 송토목 30짐을 요구한다. 백자 1,500입을 생산하는 데에 약 50짐의 장작이 쓰인다.⁶³⁾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30짐 정도에 약 1,000입 정도가 생산되었을 것이다. 이 30짐의 땔감을 한 번만 수령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용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1687년 7월 경에는 1,000입 이상의 백자가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왜관요의 운영과 함께 왜관요 운영에 필요한 자원인 인원과 원료, 그리고 연료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했다. 지방관아의 문서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누구의 명에 의해 물자가 이동하였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따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1644년을 기점으로 왜관요를 왜관 내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과, 왜관의 운영 방법과 왜관요의 운영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그 간략한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왜관요에서는 대마번의 구청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 보내준 조선인 사기장, 일꾼, 그리고 일본 대마번에서 파견된 도공두, 화공왜, 번조왜 등이 함께 작업을 하였다. 대마번에서 이들을 구청할 지역을 선정하였고 사기장들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조선인 사기장들은 왜관요에서 활동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다.

원료와 연료에 해당하는 도토와 땔감의 제공 역시 있었는데, 사기장

63) 권병탁,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27쪽.

구청과 마찬가지로 대마번에서 도토와 땔감 또한 구청하였다. 구청에 기재된 자재는 조선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도토의 이동은 예조의 명에 따라 각 지방 수령이 담당했다. 흙의 양은 매년 1석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으나 수량은 적지 않았다. 또한 사기장과 마찬가지로 도토의 지역을 선별하여 구청한 점, 여러 색의 흙과 함께 약토를 구청한 점 역시 주목할 만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조운과 육운의 경로를 추정해보았다. 땔감의 경우 부산 인근 지역에서 수급하였을 것이며, 왜관 운영에 필요한 땔감을 보관하던 시탄고가 왜관요에 땔감을 공급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산에서는 왜관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학자가 힘을 합쳐서 발굴과 채집 작업 및 발굴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본고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우는 것을 앞으로의 방점으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經國大典』, 『館守條書』, 『萬機要覽』, 『世宗實錄』, 『續大典』, 『承政院日記』, 『왜인구청등록』

2. 저서 및 논문

권병탁, 『전통도자기의 생산과 수요』,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권상인, 「倭館窯에 관한 小考」, 『차문화학』 32, 2016.

김강일, 「조선후기 왜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왜관과 범죄: 접촉과 상호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1, 2012.

- _____, 「근세 후기 倭館의 交奸事件과 데지마(出島)의 遊女들」, 『전북사학』 46, 2015.
- 김동철, 「17·18세기 대일공무역에서의 공작미 문제」, 『향도부산』 10, 1993.
- _____, 「조선 후기 왜관 개시무역과 동래상인」, 『민족문화』 21, 1998.
- _____, 「조선후기 왜관 개시무역 상인의 구성과 활동」, 『역사와 세계』 46, 2014.
-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공목」, 『한일관계사연구』 42, 2012.
- 김현지, 「조선후기 釜山 新官窯 연구-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신관요 수습유물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박은숙, 「분원사기장의 존재양상과 개항 후 변화」, 『한국근대사연구』 67, 2013.
- 박형빈, 「고려다완의 일본전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형순, 「고흥 운대리 분장분청사기의 현황과 성격-운대리 7호를 중심으로-」, 『동북아 분장분청사기의 변천과 고흥 운대리 분장분청사기의 의미』(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국제학술대회), 2017.
- 방병선, 「효 숙종시대의 도자(陶磁)」, 『강좌미술사』 6, 1994.
- _____, 「17~18세기 동아시아 도자교류사 연구」, 『미술사학연구』 232, 2001.
- _____,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 _____, 「조선 도자의 일본 전파와 이삼평」, 『백제문화』 32, 2003.
- _____, 「임란 이후 조선도자- 대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 도자문화의 교류양상』, 경인문화사, 2005.
- 방병선 외, 『한·일 도자문화의 교류양상』, 경인문화사, 2005.
- 성현주, 「기장지역 도자기의 제작기법과 도자사적 성격」, 『한국민족문화』 33, 2009.
- 양홍숙, 「17세기 두모포왜관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방관의 역할」, 『한국민족문화』 31, 2008.
- _____, 「‘범죄’를 통해 본 조선후기 왜관 주변 지역민의 일상과 일탈」, 『한국민족문화』 40, 2011.
- _____, 「조선후기 왜관 통제책과 동래 지역민의 대응」, 『역사와 세계』 37, 2010.
- 유현재, 「조선후기 鑄錢정책과 재정활용」,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이미숙, 「일본 큐슈 지역 조선 피로사기장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영훈 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이완영, 「동래부 및 왜관의 행정소고」, 『향도부산』 2, 1963.

- 이승민,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 이종봉,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도자기 생산과 의미」, 『한국민족문화』 33, 2009.
- 이현정, 「고려다완 연구사」, 『일본학논집』 28, 2012.
- 이효원, 「17세기 후반~18세기 日關係 研究-倭館을 통한 銅 輸入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기던 외, 「에도시대(江戸時代) 부산요(釜山窯)에 주문, 생산된 어본다완(御本茶碗)에 관한 연구」, 『차문화학』 31, 2016.
- 장순순, 「조선후기 왜관 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한일관계사연구』 54, 2016.
- _____, 「조선후기 倭館에서 발생한 朝日 양국인의 물리적 마찰 실태와 처리」, 『한국민족문화』 31, 2008.
- 조우석 외, 「도자기 태토의 주요 산지조사 및 광물학적 특성분석을 통한 양질의 태토 모델 구축」, 국립중앙과학관, 2010.
- 정두섭, 「조선시대 양구백토의 생산과 운송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5, 2012.
- 지세리, 「교토 건인사 소장 고려다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완기, 「조선후기 지도선의 세곡임운」, 『한국사연구』 57, 1987.
- 片山まび, 「임진왜란 이후 일본주문 다완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24, 2010.
- _____, 「釜山 古館窯에 대한 考察 -位置, 技術, 그리고 意義를 중심으로-」, 『동양미술사학』 3, 2015.
- 허현정, 「조선후기 왜관요의 운영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金義煥, 「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 『東洋學報』 108, 1983.
-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4, 1968.
- 泉澄一, 『釜山窯の史的 연구』, 關西大學出版部, 1986.
- 片山まび・永井正浩, 「韓國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의 釜山窯出土片について」, 『東洋陶磁』, 2014.

| Abstract |

Resource Supply and Demand of Waegwanyo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o, Hyun-Jung

Waegwanyo was installed in Waegwa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made pottery for the order of Demabu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aegwan was installed in Jeollyeong Island and relocated to Dumopo and Choryang. If you look at the records of Record of Japanese' Requests(倭人求請謄錄) there is a record of running Waegwanyo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Dumopo Waegwan. The records show that Waegwanyo was previously installed outside the Waegwan, but later inside the Waegwan.

The Japanese side sent a document asking for the opening of the waegwan kiln, which was sent by a Dongnae adverb to Seoul. Waegwanyo was only operated when the Yejo(禮曹) approved it. In the process, Japan sought the clay, medicinal soil, and firewood to be used in Waegwanyo. In addition, a potter of Joseon was also requested to arrange the pottery in Waegwanyo to be made smoothly.

The number of people who produced themselves included potters and painters dispatched from Japan in addition to the Korean potters and workers requested from Japan. Their wages were paid in Japan. The main ingredients of the soil were supplied from Jinju, Hadong, Konyang, Gyeongju, Ulsan and Gimhae in Gyeongsang Province, and the amount, type, and production area of the soil were selected in Japan. Likewise, fuel was given when it was requested from Japan and provided the fuel needed

for Waegwanyo in Joseon. Firewood, the main fuel, was produced in the Busan area. It is assumed that the residents of Gyeongsang Province were mobilized in the process. In the paper, the operation of Waegwanyo and the production of pottery are intensively considered. It seeks to identify the substance of the operation.

Keyword: Waegwanyo, Operation of Waegwanyo, The movement of Potter's clay, Potters of Joseon, Japanese Requested Porcelain

